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용택 시인

나는 강가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 산다. 나의 조상들이 4백여 년 전 임진왜란 때 이곳으로 피난 와서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내가 두 살 때 전쟁이 일어났다. 집은 불태워지고, 그때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를 잃었다. 피난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재만 남은 집터에 초가삼간 집을 짓고 살았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세 번째 집으로 1962년에 지으셨다. 아버지는 나무와 풀과 햇살과 흙과 바람으로 집을 지으셨다. 나도 그렇게 바람과 햇살과 흙과 나무로 시를 쓰며 그 시속에서 살고 싶었다.

마을을 만들어 살면서 사람들은 마을의 질서를 위해 법을 만들어 갔다. 불문율이다.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막 말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도둑질을 하다 들리면 추방당하거나 스스로 마을을 떠나야 했다. 거짓말을 하면 평생 신용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다.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은 사는 게 공부였다. 배우면 써먹었다. 자연이 하는 말을, 자연이 시키는 일을 잘 알아서 농사와 삶의 근본을 살았다. 삶이 예술이었다. 평

시인이 사는 마을

생 농사를 지었다. 어머니는 늘 나에게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남의 일 같지 않다. 싸워야 크다. 사람이 마을을 곁에 써야 한다고 했다.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마을을 곁에 써야' 한다는 말이었다.

삶 속에서 만들어진 마을 법을 지키며 사람들은 같이 먹고 같이 일하면서 같이 놀았다. 일과 놀이가 하나였던 마을 사람들의 삶을 사람들은 마을 공동체라 했다. 공동체라는 정치경제 문화 사회적이고 인문적인 이 아름다운 말은, 실은 이 작은 마을 문화에서 만들어졌다. 마을에는 별로 소식이 없었고, 쓰레기가 강물로 나가지 않았다. 가난을 무시하지 않았다. 가난은 남모르게 서로 돌보는 것이라고 나는 배웠다. "마을에서 살아남으면 어디 가서도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다.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어렵고도 아름다운 말이다. 마을은 인간을 가르치고 양성하는 학교였다.

스물한 살 때 초등학교 선생이 된 나는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에서 31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대로 되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 인생이 더 잘 되어 있어서 나는 놀란다.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일이 늘 새로웠고, 신비로웠고, 감동적이었다. 초가를 햇살을 날개에 실은 잠자리들이 날아다니는 운동장에서 나는 아이들과 뛰어놀았다. 아이들은 나의 아름다운 스승이었다. 교육은,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우는 자기 교육이었다.

초등학교 6년, 선생으로 31년 동안 드나들던 모교 교문을 나올 때 나는 부끄럽고 괴로웠다. 아이들에게 잘못된 일들이 되살아나 나는 부끄러웠고, 아이들에게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웠다. 교육은 미래를 어루만지는 일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다. 그대로 살지 못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낚시로 오가던 길, 학교와 직장을 걸어 다니던 그 강길을 지금도 나는 걷고 있다. 강물을 거스르고 따르는 일은 내게 수궁과 거역을 가르쳤다. 박힌 돌에 물은 거세게 부딪히고 부서지며 흘렀다. 시정이 넘치는 이 작고 소박한 강은 내게 그리움을 실어다 주고 외로움과 태어난 땅에 사는 아픔을 가져갔다.

어느 날 누군가가 언제 어디서 시를 쓰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달이 다닌 길에서"라고 했다. 나는 달이 다니는 길을 따라다니며 강가에 앉아서 시를 썼다. 마을은 나의 학교였고, 해 아래 나무들은 나의 새 책이었으며, 새로 쓰는 시였다. 느티나무가 느티나무로 참나무가 참나무로 평생을 우람하게 사는 나무들의 하루는 나에게 마르지 않은 상상력과 시적인 영감을 주었다. 자연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그 말로 씨를 뿌려 곡식을 기우어 거두는 농부들의 일상은 나의 시가 되었다. 나는 내가 시를 쓰지 않았다. 나는 새와 바람과 달과 별들이, 나무들이 아침 강물과 저문 강물이 하는 말들을 달빛으로 공책에 받아 적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나 강을 건너 오라고 부르지 않는다. 달이 뜬 밤 나락을 짊어지고 징검다리를 건너와 달빛이 깔린 마당에 짐을 부리고 허리를 펴던 고단한 아버지들의 하루 곁에서 있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어찌 내가 잊고 살까. 나는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

종교칼럼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일원(一圓)의 내역을 말하자면 사은(四隱)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써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라"고 원불교 대종경(大衆經) 교의품(教義品)에 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구절 때문이기도 하다. 천지만물이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 죄복을 줄 수 있는 죄복의 권능자이며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불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이는 생태적 세계관의 근거이며 러브록(Love-Lock)와 마굴리스(Margulis)가 제기한 가이아 가설(Gaia hypothesis)과 상통되는 우주관이라 할 수 있다. "경건한 과학자가 나오면 내 말을 증명 할 것이라"하신 대중사의 말씀처럼 우주와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간 기계문명은 자연을 정복과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의 생태적 질서를 파괴해 왔으며, 그 결과 전 생명체의 파멸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으로 내닫고 있다. 환경의 문제는 이제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과 인종과 사상을 초월한 전체 생명의 문제다.

환경보존을 위한 종교적 실천방안

그렇다면 환경보존을 위한 종교적 실천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조금 더 실천적인 전담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사회의 변화는 개인적인 자각과 실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각자의 노력이 사회 변화의 힘이 되려면 연대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연대활동에 동참하는 일이다. 환경운동은 여러 형태의 사회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환경운동가나 평화주의자들이 구체적인 정강정책을 내걸고 녹색운동을 하고 있으며 세계적 정치지도자들이 환경문제를 주제로 회의를 갖고 유엔 산하에도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들을 두고 있다. 종교적 입장에서라도 다른 단체들과 연대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공동체 운동의 모색이다. 참 문명 세계는 바로 물질문명의 발달, 안으로는 정신문명의 발달이 조화 된 세계로 영육의 균형 속에서 은혜를 알아 보은하고 서로 도와 고루 성취하는 사회이며 이는 공익사회, 공동사회이며 낙원세계라 하였다.

인류가 그간 자유와 평등, 풍요를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해온 오늘의 세계는 인간이 승리를 자만하는 사이 스스로를 억압하고 소외시키며 인류 생존의 기반마저 황폐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제 인간을 물질의 노예상태에서 구하는 길은 삶의 방식에 전환을 가져오는 길 밖에 없다. 물질의 소유와 소비에서 삶의 기쁨을 확인하려는 인간은 소유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 인간이 처음으로 소유하여야 할 것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소유하여야 하는 것인가를 생

각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을 새롭게 생각하는 운동을 시작했으면 한다. 산업사회의 익명성은 인간의 이기심을 더욱 고철화 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익명성 사회의 무책임성을 형성하고 도시지역의 종교간 생산물을 직거래하는 방식도 운동의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직거래 운동이 성공하려면 소비자는 생산자의 수익을 보장하고,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또한 다소 불이익이 있더라도 기다리며 극복하려는 너그러운 마음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공동체 운동은 소집단적 성격을 갖지만 우주 전체를 공동체로 보는 일원주의의 하나에 기초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원불교 개교의 동기에에서 말하는 파란고해(波難苦海)의 극복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실적 삶의 상태, 즉 사회 환경과 자연 환경이 모두 바람직하게 갖추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실천은 바로 구체적인 인간의 삶의 조건과 그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할 때 그간 우리는 인간다운 삶의 조건의 터전이 되는 사회 환경의 문제, 자연 환경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소홀했던 점을 반성해야 하리라 본다.

이제 종교는 여러 모임을 통해 인류 사회의 당면과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해나가는 출발이 되고 더 나아가 종교적 및 사회적 연대를 통해 그 성과를 높이는 계기의 출발점 한 살림의 길을 나서야 할 것이다.

냉철한 판단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자

이 국민의 대표가 밀란한 정치 철학, 경륜과 도덕적 인품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자 하는 애국적 자질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사람마다 평가의 기준이 다르고 검증을 통해 가장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게 하려는 것이 선거이다. 정당의 존재 이유는 정권을 잡아 국정을 자기 당의 이념이나 국정철학에 따라 운영하고자 하는 정강정책을 구현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후보자 개인의 선택뿐만 아니라 각 당 자체도 당선자 숫자와 정당 투표를 통해 국민의 평가와 선택을 받으려 하는 것이다.

각 당은 자체의 공천심사 과정에 의해 후보자를 1차 검증해 상품을 내놓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상품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눈에 맞추어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어 폐파나 정파적 이익에 준해서 인물을 선정해 내놓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공정한 시스템이나 투명한 과정에 의한 참신한 인물보다는 사전이나 주류 비주류나 정당 대표를 입김에 맞추어 공천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온갖 저질스러운 막말과 조롱이 난무해 정치의 격이 떨어지고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비록 국회의원은 지역주인이 선출하지만 지역의 대표성보다는 국가의 대표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후보 선별 과정에

서부터 가장 투명하고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거나 사리 사욕에 의한 시행착오를 통해 선출이 왜곡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무조건적인 지지 팬덤이나 부화뇌동 세력을 믿고 공천을 '손오공 여의봉 휘두르듯' 마음대로 하는 작태는 결국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말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국민들은 각 정당에서 후보로 추천한 인물들 중에서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심 없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능력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번번히 선거에서 흑세무민과 거짓 선전선동에 속아서 잘 못 선택하고 후회하는 일이 많았다. 유권자들이 선거 때마다 지역적 연고, 당파와 지연, 학연 등에 얽매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요사이 각 정당에서는 격렬한 상대파 공격과 온갖 정책을 소나기 퍼붓듯 쏟아내고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도덕성이나 이념과 경륜 업무 추진력 등을 세세히 점검하지 않고 감성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각 당에서 내세운 이념과 정책, 공약이 국민민복의 바탕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실현가능성이 있는가를 주체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율과 합리적 판단 위에서 공정한 투표를 통해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게 필요하다.

社說

제3지대 블랙홀 '조국혁신당' 바람 심상치 않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창당하자마자 불과 2주도 안돼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두자릿수 지지율로 제3지대 정당들의 표를 무섭게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3~4일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례대표 투표 의향'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15%의 지지를 얻어 제3지대에서 단독 선두 지리에 올랐다. 개혁신당은 4%, 새로운미래는 2%를 얻는데 그쳤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조국혁신당은 7%로 개혁신당(3%)과 새로운미래(2%)를 큰 폭으로 앞섰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율은 13%로 개혁신당(3%)과 새로운미래(2%)를 멀찌감치 제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주개혁진보연합의 지지율 14%와 비슷할 정도로 비례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심상치 않다.

돌풍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지역구는 민

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는 이른바 '지민비조' 전략이 먹히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은 사표를 방지하면서 제3의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야권 지지자들의 교차투표 심리를 노리겠다며 이런 전략을 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한 호남에서 조국혁신당 바람이 돌풍 수준으로 거세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실망한 지지층이 지역구에선 민주당 후보를 찍지만 비례투표에선 조국혁신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으로 새로운미래는 이낙연 공동대표가 광주 출마로 호남에서 교두보를 확보한 후 수도권으로 세를몰이를 하려는 계획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선 선택지가 넓어졌다. 점에서 긍정적이다. 조국혁신당 바람이 투표율을 높이고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통해서나마 지역민들의 뜻을 정치권에 반영할 수 있게 됐으니 말이다.

어촌쇠퇴 막을 빈집·공유수면 특단 대책 세워야

인구 감소 등으로 쇠락한 전남어촌을 살리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중이지만 빈집이나 공유수면 등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2년 말 전남도의 어가 인구는 3만4620명(1만5723가구)으로 2010년 5만4981명에서 무려 2만361명(37.0%)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폐교, 빈집 등이 급증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안 산책길이 조성되면서 공유수면 곳곳이 해안에서 고립돼 육지화되고 있다.

하지만 어민들은 방치된 빈집이나 공유수면 등 남아도는 공간과 부지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어촌뉴딜 300',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정부 및 지자체의 프로젝트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어촌이 시설 부지를 마련해야 하지만 규제 위주의 공유수면 관리와 빈집 방치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설령 자부담으로 시설 부지를 마련해 임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

더라도 분장에 휘말리거나 경제성이 떨어져 운영난에 시달리기도 한다. 보성 석간마을의 강영연 어촌계장은 육지화된 공간을 어울림센터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매립에 나섰다.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경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빈집이 많은데 개발할 부지가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전남도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어촌뉴딜 300 공모에서 어촌 98곳이, 윤석열 정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선 27곳이 선정돼 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수익·편의 시설 부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쇠퇴한 어촌에 젊은 세대와 귀어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 육지화가 진행된 공유수면은 공공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3년이상 방치된 빈집은 지자체가 공시지가로 수용하게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저렇게 추구하는 팀한테 졌다는 게 제일 좀 부럽습니다." 지난해 3월 홈 개막전에서 패한 광주FC 이정호 감독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경기를 압도하고도 승부에 서 지지 울분을 참지 못했다. 자기주장이 강하고 표현이 직설적인 그는 팀이 이겨도 선수들이 약속된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불호령을 내린다. 경기 내내 쏟아내는 사투리와 외투와 목도리를 벗어 던지는 등 거친 퍼포먼스는 승리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준다.

이정호 감독은 K리그 최고 전략가로 통한다. 전술의 핵심은 공간 활용. 좌우명은 공격축구

전략가 이정호

다. 모든 전술은 어떻게 해서 골을 넣을까에 초점을 맞춘다. 광주FC는 매순간 효율적인 위치를 잡아가는 포지션 플레이가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팀이다. 선수들은 전술 훈련을 통해서 공을 가지고 있을 때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어디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이 감독은 빈 공간을 활용해 빌드업 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감독을 좋아한다. 세계 축구 트렌드를 팀에 적용해 K리그의 전술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광주는 지난 시즌 3위라는 구단 역사상 최고의 성적과 함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권까지 확보했다. 이 감독은 전지훈련 때 하루 2시간 이상 잔 적이 없다고 한다. 전술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많은 훈련을 통해 선수들을 성장시키고 완벽하게 준비한 결과다. 그는 좋은 지도자보다는 선수들의 꿈을 크게 만들어주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한다. 팬들의 사랑에도 목이 마르다. 지난해 광주구장의

평균 관중은 4500명 정도. 올해 6000명을 넘기면 좋은 경품을 선물하기 위해 적금까지 열었다.

광주는 올 시즌 개막전에서 맨유 출신 리нга드가 출전한 서울을 2-0으로 제압하고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이 감독은 성적에 대해 큰 부담이 없다고 말한다. 팬들의 기대보다 자신의 기대가 더 크기 때문이다. 올 시즌엔 지난해보다 더 나은 전술과 실력으로 K리그 판을 흔들고 싶어 한다. 화려한 공격축구로 재미와 성적 두 마리 토끼를 잡고 리그 우승을 쏙구는 이정호. 그의 꿈은 광주의 꿈이기도 하다. /유재만 편집담당기국장 jkyou@

기고



김용하 시인 전 광주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지금 우리나라는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 열풍에 빠져 있다. 날마다 뉴스의 대부분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각종 소식들로 채워지고 국민들의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여야 각당에서 공천작업이 진행중인 터라 누가 어느 지역의 후보자로 공천될지, 누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사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승자와 패자의 애환이 날마다 보도되고 있다.

어느 당사 앞에서는 경선에서 탈락한 입지자가 두 번이나 자신을 시도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연출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자 여러 명이 공천 탈락에 불만을 품고 오랫동안 같이 활동해온 당직과 동지들을 버린 채 탈당을 하거나 비판을 하면서 적대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최소한 지역을 대표하고 국정을 논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회 지도층 인사들로서 그에 합당한 경륜을 쌓아 왔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당내 경선에 응모하거나 예비후보 등록을 할 정도면 자신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and other contact information.